“한국 인쇄출판문화사, 불교가 이끌었다”

통도사, ‘인쇄출판문화사’ 주제 8월 12일 해장보각서 학술대회
한국인쇄출판. 정신문화 반영물 불교경전 보급 방편 목판인쇄술 한지, 금속주조 등 발전 뒷받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8월 12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한국인쇄출판문화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술대회에 앞서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참가 대중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의 인쇄출판은 우리 민족문화의 핵심이자 기반이며 불교가 없었다면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8월 12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한국인쇄출판문화사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가 한국인쇄출판문화사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고 불교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부길만 동원대 명예교수는 ‘한국인쇄출판문화사 연구의 성과와 의의’를 통해 “한국의 인쇄출판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구체적인 반영물이며, 동시에 우리 역사를 이끌어 온 매체”라며 “인쇄출판은 기록의 산물인바, 기록이 없는 민족은 역사적 가치를 부여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기록이 풍부할 때 민족의 역사도 찬란해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쇄출판문화사 연구의 의의는 역사적 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한국의 사상사 또는 문화사 연구의 기초”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기본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연구 의의를 전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기록물로 본 신라와 고려의 사회문화’를 발표했다. 고 교수는 “인쇄술이 생겨나기 전에는 필사가 주류를 이뤘고, 금석류나 기물류 등의 표면에 문자나 도상을 조각하고 탁인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됐다”며 “탁인 기술은 석판에 장문의 경전을 새기거나, 금판과 동판에 글자를 새기는 단계로 발전했다. 이 같은 경험이 축적돼 나무 평면에 글자의 획과 그림을 반대로 새겨 다량으로 찍어내는 목판인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라의 불교 문화 발달이 바탕이 되고 경전의 보급 및 저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달한 것이 목판인쇄술”이라고 강조했다.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는 ‘신라와 고려의 인쇄문화’를 통해 “불교가 없었다면 인쇄술은 없었을 것”이라며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술은 국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1966년 10월 13일 경주 불국사 석가탑을 수리하던 중 탑신부 사리함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는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가 가능했던 것은 쇠를 만드는 제금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며 주조기술의 발달이 인쇄술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발전해 5㎜ 크기의 초소형 금속활자 속에 애국가 가사 가운데 총 129자를 넣는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현대 한국의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 말했다.

박몽구 (재)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은 ‘신라와 고려의 출판문화’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욕구가 어느 민족보다 강했으며 진리에 대한 탐구 정신이 강해 인쇄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며 “불교 중심으로 경전 발행과 해석을 위한 높은 의욕이 출판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후 문학과 인재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학술대회에서 성파 대종사는 “출판 인쇄 문화는 사바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며 그 자체만으로도 지식의 창고이다”며 “찬란한 불교의 역사는 한국의 출판인쇄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전 세계 가운데 우리는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 가치를 널리 알고 깨우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귀의·오계 수지하오니” 1300대중 불자로 거듭나다

조계종부산聯, 8월10일 수계법회
제6대 회장 목종 스님 취임식도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8월 10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7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제6대 회장 취임식도 마련돼 새로운 전법의 장을 선포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는 결계의식을 시작으로 삼사 칠증사가 계단을 증명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맡았으며 갈마아사리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교수아사리는 직전 회장 원허 스님이 담당했다. 칠증사인 존증아사리는 신임회장 목종 스님, 미타선원 원장 하림 스님, 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도일 스님, 재단법인 동명불원 원장 원순 스님, 연합회 부회장 만초 스님, 지일 스님, 담화림 스님이 각각 담당했다.

수계인원은 총 1300여 명이며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사찰 신도들을 비롯해 대전과 울산, 양산 등 타 지역의 불자들이 동참해 계를 지켜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이와함께 부산공무원불자회, 부산지방경찰청 경불회 소속 불자, 범어사 관음회, 부산여성불자회, 삼보회,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등 신행단체도 참여했다. 특히 새로운 동참자로 제53사단 보병대, 해군작전사령부 군장병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전계대화상 지현 스님은 “계율을 지키고 선정 수행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라며 “오늘 받은 계를 의지해 선정을 닦고 지혜를 증장하면 참여한 불자들의 마음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이취임식에서는 제6대 회장으로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이 취임했다.

신임회장 목종 스님은 취임사에서 “오늘 함께해주신 스님들과 우리 불자님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부족한 제가 회장 소임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족한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어 걱정도 많이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계종부산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조계종부산연합회는 8월 10일 ‘제7회 삼귀의계 · 오계 수계법회’와 ‘제6대 회장 목종 스님 취임법회’를 함께 봉행했다. 사진은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 목종 스님이 회기를 전달받아 흔들고 있다.

사찰, 어린이 행복 놀이터가 됐어요

부산 삼광사, 어린이여름캠프
8월 10일~11일 경내 일원서

부산 천태종 삼광사가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놀이터가 됐다.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어린이여름문화캠프’를 진행했다.

어린이여름문화캠프에는 지역 어린이 70여 명이 동참했으며 입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각 6조로 나눠 진행된 프로그램은 장기자랑을 뽐내고 즐기는 댄스, 음악 시간 등이 마련됐으며 물놀이, VR체험, 공연이벤트 등 즐거운 체험도 이어졌다.

특히 싱잉볼 명상, 발우공양, 108배, 명상 등 불교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마음의 쉼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도 진행됐다.

회향식에서는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교무국장 덕중 스님, 일지 스님(구인사 어린이법회 법사) 등 내빈이 동참해 격려했으며 학부모 및 참여 어린이가 동참했다.


삼광사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어린이여름문화캠프’를 진행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회향 법문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바다마음 단주 명상 부스’를 마무리하며

바다마음 한마음 단주 명상, MZ 사로잡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국제불교박람회 명상부스 운영

‘물방울아 바다로 가자’ 주제로
주인공 관법+단주 만들기 명상
MZ세대 호응 높아 ‘인기 만점’

2024년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누적 관람 인원 5만 명을 돌파하며 성료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성공에 힘입어 부산에서도 열린다는 소식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바다마음 단주 명상 체험’ 부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물방울아 바다로 가자”라는 주제로 준비된 체험 부스는 대행 선사의 관법 수행을 단주 만들기에 녹여낸 프로그램으로 고민이나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를 물방울에 비유해 참나인 한마음 바다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명상 수업을 진행하며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친근하게 마음법을 전할까 고심하던 부산지원의 혜벽 스님이 만들어 낸 프로그램이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박람회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이나 순서를 수정해 나가는 시간을 거쳤다. 바다와 물방울로 마음법을 표현한 그림책과 3D 영상도 제작했다. 그림책은 외국인들의 참여를 대비해 영문 번역도 함께 실었다.

바다마음 단주 명상 체험 부스의 반응은 첫날부터 뜨거웠다. 검은색이 주를 이룬 박람회장의 수많은 부스 가운데 푸른색의 모시 세 가닥을 길게 늘어뜨려 시원한 바다를 연상시킨 부스는 눈길을 끌었다. 단주에 사용된 푸른색 원석과 자개 돌고래, 은고리 등이 어우러진 단주 완성품도 예쁘다는 감탄을 자아냈다. 박람회장을 찾은 MZ세대들은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체험 예약은 오전 중에 마감됐다. 체험하려고 했으나 마감돼 아쉬웠다는 글들이 SNS에 공유되며 마지막 날에는 10시 오픈과 동시에 예약을 위해 70~80명이 줄을 서기도 했을 정도였다. 대전에서 첫 기차를 타고 왔다는 참가자부터 김해에서 10시에 입장해 오후 5시 체험까지 7시간을 기다렸다는 체험자까지 젊은 층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체험 부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부스 앞이 사람들로 붐빌수록 모시를 드리워 분리한 체험 공간은 더욱 고요하고 프로그램 진행은 한층 더 차분하게 진행됐다. 부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어폰을 끼고 연꽃이 그려진 좌복 위에 앉은 것. 일시에 박람회장의 소란함은 사라지고 고요히 정좌한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의 전 과정은 박람회장의 번다함과 소음을 차단하고 집중력과 고요함을 확보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 ‘바다마음 단주 명상 부스’를 운영했다. 사진은 바다마음 단주 명상을 체험하는 관람객들.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는 구정물, 핏물 어떠한 것이든 다 받아들이는 바다 같은 한마음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대행 선사의 법문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네 장의 그림카드를 보며 단주의 의미를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근본인 참나를 뜻하는 푸른빛 구슬 원석, 지혜로운 한 생각 내기를 뜻하는 하트 원석,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물방울 원석을 은고리와 연결해 단주를 만들며 나를 돌아보고 지혜롭게 마음쓰는 법을 연습했다. 30여 분의 체험 시간을 마친 체험자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생각 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걱정, 고민, 갈등의 물방울들을 고요한 근본 바다에 돌려놓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바다 마음 단주 만들기를 끝낸 뒤 적어낸 참가자들의 발원문이에는 지혜로운 한생각들이 담겨 있었다. 한 참가자는 “최근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힘들었는데 이 또한 근본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니 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을 주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마음속에서 걱정, 의심, 불안이 끊이지 않아 편안한 때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큰 바다에서 나온 물방울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예쁜 바다마음 단주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의 근본이 바다같다는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새기겠다”고 했다.

이번 바다마음 단주 명상 부스의 뜨거운 반응은 나이, 성별, 종교를 떠나 누구에게나 쉽고 친근하게 불교를 알리는 불교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반짝 높아졌다 사라져 버리는 관심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할까를 되묻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바다마음 단주 명상 부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명상존을 운영할 팀을 찾기 위해서 부산불교박람회를 돌아보던 국제회의 기획자의 눈에 띄어 10월에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비욘드 한글 & K 컬쳐 페스티벌 마스터 클래스 명상 부문 부스 운영을 제안 받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콘텐츠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며 부스 운영에 참여해달라고 초청한 것이다. 아직 논의 단계이긴 하지만 MZ세대에 이어 오는 10월, 부산을 찾는 외국인 전문가들을 한마음의 바다로 초대하기 위한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떼는 시점이다.

천미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